조선일보 - 1936 . 05. 29/ 5면/ 1단

存在學의槪念

-形而上學批評試論-⑤

金基錫

우리들은 存在가 個物에 잇서서 자기를 한 개의 眞實한 존재로 限定함을 보앗다. 이 個物이란 무엇인가. 이 個物이란 것을 깁히 생각해 본 이로서 우리들은『라입닛츠[라이프니츠]』를 記憶한다.『라입닛츠』는 個物이 個物이 되기 위하야는 그것이 다른 個物에 대하야 굿게『문』을 다더야하는 것으로 보앗다. 個物이 다른 個物에 대하야 굿게『문』을 닷는다는 것은 個物이 자기를 世界에서 차즐 길이 업는 오직 하나인 자기로 限定한다는 것이니, 이 자기를 자기로 限定하는 일이 個物이 한 개의 個物이 되고 다른 個物이 되지 안는 個物 자신의 眞實한 性格이 아니면 안된다.

『라입닛츠』는 이 個物의 自己限定을 個物이 그 자신의『문』을 닷는다고 보앗고 모든 個物은 모도 그 자신의『들창』을 나리고 서로 마조섯는『모나드』라고 보앗던 것이다. 個物이 個物이 되기 위하야는 그 자신의『문』을 다더야 한다. 그러나 만흔 個物은 서로 얼매여 한 개의 世界를 이루지 안허서는 안된다. 이 굿게『문』다든『모나드』가 엇더케 서로 얼매일 것인가?『라입닛츠』는 여기서 한 개의 크다란『아포리아』에 나섯다. 그리하야 그는 이『아포리아』를 풀기 위하야『神의 豫定調和』란 것을 가저왓고 이『神의 豫定調和』란 것에 잇서서 자기가 맛난『아포리아』가 쉽게 풀리고만 것으로 보아 버렷다.

個物은 엇던 一般者에 잇서서 잇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어떤 一般者의 自己限定에 잇서서 잇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一般者는 個物에 잇서서 자기를 個別的인 一般者로 보인다. 個物을 떠나서 一般者는 업고 一般者를 떠나서는 個物은 個物이 될 길이 업는 것이다. 우리들은 存在가 時間的『場所』的 一般者임을 보앗나니 이제 우리들은 다시 나어가 이 個別과 一般또는 特殊와 普遍에 잇서서 存在를 깁히 省察하지 안허서는 안된다.『헤-겔』은 처음으로 存在를 이 個別과 一般에 잇서서 생각해 보앗다.『헤-겔』은 存在의 背後에

어떤 絶對者를 想定하고 이 絶對者는 具體的인 個物을 通하야서뿐 자기를 表現한다고 보앗다. 『헤-겔』에게 잇서서 個物은 그대로 어떤 絶對者의 몸이요, 얼골이엿던 것이다. 『헤-겔』은 이것을 具體的 普遍이라고 부르고 단순한 抽象的인 普遍이 個物에 잇서서 個物로 나타나는 일에 잇서서 그 자신의 眞實한 具體性 一般性을 가추게 된다고 보앗다. 그리하야 이 絶對者는 個物을 通하야 다시 絶對者에 歸還한다. 個別은 一般의 個別이오, 特殊는 普遍의 特殊가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도리켜 一般은 엇던 個別의 一般이요, 特殊는 엇던 普遍의 特殊가 아닐가?

『헤-겔』이 個物속에서 一般者를 본 것은 분명히 바로 본 것이다. 그러나 『헤-겔』은 여전히 個別보다는 一般에 치우첫다. 普遍 卽 特殊, 特殊 卽 普遍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特殊보다는 普遍에 기우러젓다. 一般을 살리기 위하야 個別을 가저왓고 普遍을 살리기 위하야 特殊를 가저온데 지나지 안는다. 입으로는 特殊 卽 普遍을 외오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承認하려고 하지 안헛다. 여기서 우리들은 依然한 한 개의 神學이요 存在學이 아닌 『헤-겔』哲學의 根本限界를 보는 것이다.

四. 西田哲學과 새로운 立場

『헤-겔』은 存在가 『有』에 잇서서 잇다고 본다. 이 『有』를 一般이라고 부르고 普遍이라고 부른다. 『헤-겔』에게 잇서서 世界는 이 『有』의 辨證法的 圓環運動에서 나지 안는다. 西田敎授는 存在가 『無』에 잇서서 잇다고 본다. 이 『無』를 一般이라 부르고 『場所』라고 부른다. 그리하야 世界는 이 『無』의 無限한 自覺的 體系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個物의 背後를 無로 본 것은 바로 본 것이다. 存在의 뒤에 엇던 絶對者가 잇는 것이 아니고 無의 深淵이 잇고 이 無의 深淵을 그 一般的인 『場所』로 하고 그 속에 싸히면서 個物이 진실한 個別 밋 特殊로써 自己를 限定한다고 본 것은 바로 본 것이다. 『헤-겔』에게 잇서서 一般者는 有인 實在이엿스나 西田敎授에게 잇서서 一般者는 無인 背景인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헤-겔』의 具體的 普遍과 갓지 아니한 西田敎授는 一般을 『場所』의 自己限定으로 주어지는 眞實한 實在라고 보앗다. 『헤-겔』의 哲學이 『一般』의 哲學이요, 『普遍』의 哲學임에 反하야 西田敎授의 哲學은 어느 意味의 『個別』의 哲學, 『特殊』의 哲學이 아닐가?

西田敎授는 無의 自己限定者로서 個物을 생각한다. 그리하야 普遍의 特殊化는 個物에 이르러 그 極限에 잇는 것으로 본다. 個物의 背後는 바로 無의 深淵이니 個物은 그 이상 더 자기를 特殊化할 길이 업는 가장 具體的인 眞實한 存在라고 한다. 個物은 無의 背景에 잇서서 成立된다. 그러나 個物은

한 개의 極限인 個物로 그치고 말 것인가? 個物은 그 자신을 다시 一般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個別化를 시작할 길이 업슬 것인가?